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애국주의교양실, 계급교양실, 전자오락실 등으로 이루어진 회관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어머수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리었다고 하시면서 문명향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야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샤워장,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고 모든 설비들과 인공잔디까지도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것이라는데 대단하다고, 야영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겠다고 기뻐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 구내를 걸으시면서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야영소의 경치가 정말 좋다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주변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야영소구내를 교재됨으로 전환시켜 야영생들을 위한 교육장소

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수 있는것은 이 땅위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그 결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소년단야영소

를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돌아보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땅의 국산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체물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연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이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려같은 은덕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당의 온정어린 야영소에서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양학생소년궁전 로동자 강예화, 조선국제레전드 여행사 부원 백일심은 뜨거운 열육의 정을 안고 북부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번역원 손정명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피해지역 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북부지역에 보내주었다.

북부피해복구전투가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부투전이라는것을 명심한 통파도지도자 산하단위 로동자 김은별, 경흥지도국 부원 미현원, 산하단위 실장 전지혁, 부원 강은정, 로동자 최은정, 심경희, 평양제1중학교 교원 리경미, 사서 리규원은 많은 자금을 헌납하는 애국적 소행을 발휘하였다.

강원도미술장작사 학술연구원 박경림, 원산시 해안동 46인민반 김백만, 상봉 64인민반 김광실, 원석동 86인민반 주영남, 승리동 33인민반 리선미, 천내군 통파로동자구 36인민반 리선영, 상도군대동관리부 로동자 박성국, 정철민, 김순철, 통천군 장진리 14인민반 함영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입처럼 여기고 성실성의로 지원하였다.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당의 은덕을 가슴스스하게 느끼며 신의주야영대학 로동자 독고순희, 평안북도인민혁명 의사 최명일, 평안북도 관문리관 로동자 김송이, 평안남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책임자 림정순,

국도환경보호성 산하단위 책임자 심은숙, 평성시 은덕1동 20인민반 정명철, 송남정년관방 로동자 김명화, 순천지구정년관방합기연구소 산하단위 지대인 권영도, 석탄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최희진, 강장 리명철도 북변방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아줌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자강도림업관리국 파장 배영삼, 회천시 전진동 6인민반 정영순, 만포방사공장 지대인 주복순은 전부모, 전형제들을 위하여 심정으로 수많은 생활필수물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계획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김태민, 청진시 송평구역 풍호정농장농장 농장원 장정순, 김책공기계공정장야소 소장 황미옥, 평성시 포항구역가내측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옥희,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 평성시모항상점 지대인 미희경, 부원 김영호,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강과장 황승민, 단천지구방업총국 산하단위 소장 김경호, 함흥시 동흥산구역 서문1동 51인민반 김철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살림집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들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을 창조한 그 정신, 그 기적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헌신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났다.

본사기자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자

삼지연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삼지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였다.

그들은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정치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으로 굳건히 무장시키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민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댈쳐입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행이며 기쁨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군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성지에 서 사는 궁지와 지부심을 안고 헌겁의 위력으로 혁명의 성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지구를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